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생애 첫 투표' 설립니다

“공보물·토론회 등 후보자 꼼꼼히 살폈죠”

전남공고 3학년 김정빈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 21대 총선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할 김정빈(18·전남공고 3학년)군은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인 자신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 만큼, 들뜬 마음과 책임감이 가득하다.

김군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폈다. 개학이 미뤄지면서 선거관련 교육을 듣지 못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찾아 나섰다는 게 김군의 설명.

김군은 “정보가 많지 않은 탓에 집으로 배송된 선거 공보물이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며 “후보자들이 출연한 TV 토론회도 마음속 지지 후보자를 정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군은 “청소년, 청년을 위한 정책을 내보인 후보자들을 유심히 살폈다.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도 생각해봤다. 그럴싸한 공약을 내건 후보자보다 추진 가능한 공약을 내건 후보자가 더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 의장을 맡고 있

는 김군은 투표에 무관심한 또래들에게도 투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다. 김군은 “청소년들의 한 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만큼 투표에 무관심한 주위 친구들에게도 투표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성별,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청년·여성 친화적인 후보 뽑고 싶어요”

조선대 3학년 박지윤양



“딱히 마음에 드는 후보는 없지만, 청년 친화적인 그런 후보에 표를 주려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박지윤(22)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막상 투표하려고 하니 찍을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금으로선 마음에 드는 후보도 올바른 정책을 내는 정당도 없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이 ‘차선’을 택하기로 했다.

그래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평을 듣는다는 박 씨는 “나 같은 젊은이의 사회 참여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후보, 무력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을 낸 후보와 정당에게 보다 많은 점수를 줄 생각이다”고 밝혔다.

또 여성과 관련한 범죄가 빈번한 요즘에 여성의 안전, 성범죄와 관련해 속시원한 정책을 마련한 후보, 청년의 미래를 밝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정치에 관심을 가져 진정한 청년 집단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청년에게는 지금보다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를 이끈다는 신념으로 꼭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다문화 가정 관심 갖도록 한표 행사할 것”

필리핀 결혼 이주여성 아이린씨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갖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2014년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와 지난해 처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린(28·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15일 우리나라에서 첫 투표를 한다.

5년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 소중한 한표를 처음 행사하는 아이린씨는 아직도 본인인 한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얼떨떨 하다’고 했다.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필리핀 친구들 사이에서 아이린씨는 부러움을 사고 있다.

아이린씨는 한국인인 이모부 소개로 남편을 만나, 세살과 한 살짜리 남자 아이 2명을 뒀다.

아이린씨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필리핀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친구들로부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다고 한다.

아이린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

책을 펼치는 사람에게 행사하겠다. 아직은 한국어가 서툴러 공보물을 다 보지는 못했다”면서 “하루 남은 기간동안 가족들과 함께 모여 공보물을 세심히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을 많이 낳으려면서 병원비도 비싸고 교육비도 비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긴급돌봄 교실서 온라인 수업 14일 광주시 북구 효동초등학교 긴급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EBS 강의를 통한 비대면 수업을 듣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사회적 거리두기 했다며...유흥업소에 30만원 지원?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업소별로 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거리두기'에 동참해 문을 닫은 업소 외에도 종업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거나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출입손님들의 이름·전화번호 등의 명부를 작성하는 형태로 준수사항을 지킨 클럽,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기로 했다.

준수사항에 대한 신뢰성 여부 뿐 아니라 하루 술값만 수십만원에 이르는 업소들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제도 취지와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유흥주점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대상 업소들의 신청을 받는다. 공공요금 지원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달리, 유흥업소의

여수시, 370곳에 지역상품권 "출입명부 작성 제대로 할까" 신뢰성 의문·생색내기 지적도

경우 세금을 내면서도 소상공인으로 적용받지 않아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여수시 설명이다.

여수시는 지역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등 370곳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시기인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문을 닫거나 방역 준수사항을 이행한 업소에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해당 기간 중 문을 닫은 213개 업소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수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심사를 거쳐 3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키며 운영하는 업소들도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종업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 동선, 밀접 접촉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출입 손님 인적사항·연락처 등을 기록하는 업소들에 대해 30만원씩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룻밤 술값만 수십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원 취지가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를 드리겠다는 여수시 설명에도, '생색내기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뢰를 밝히기 꺼리는 손님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출입명부 작성 가능성이 낮아지는 의문도 제기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유흥업소 출입할때만이라도 8가지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 코로나19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올 화재 발생 크게 줄어 무전취식 징역형 40대, 출소 11일만에 또 술 마시고 '오리발'

전남지역 올해 1분기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

화재 발생 건수는 741건으로 인명피해 27명(사망 13명·부상 14명) 재산피해는 101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는 21.8%(207건) 줄었고 인명피해는 43.8%(21명) 감소했다.화재 원인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9%(437건)로 가장 많았다. /김형호 기자 khh@



○...무전취식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또다시 술값을 내지 않아 기소된 40대 남성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기각.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서구 동음역에서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원심(징역 6개월)을 그대로 유지.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사기죄로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